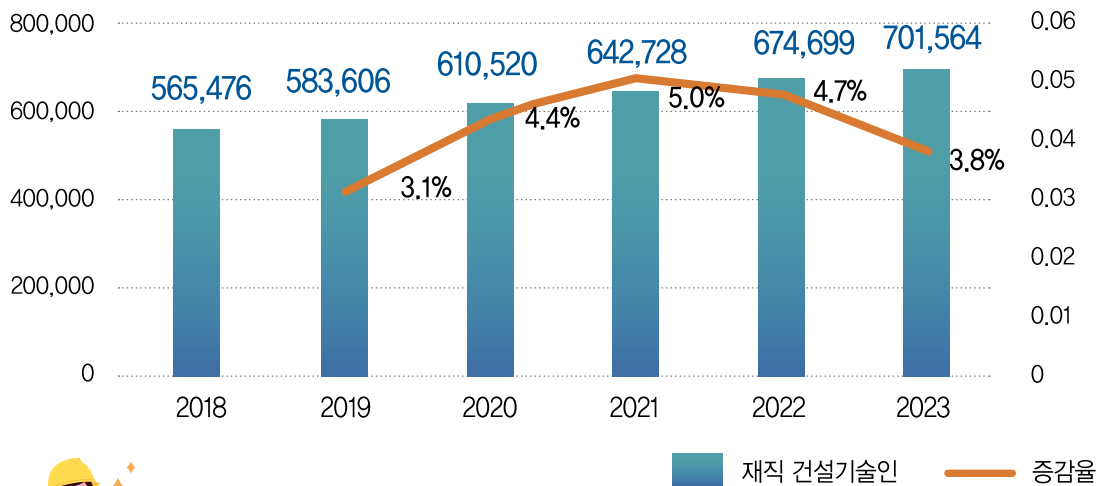


# 재직 건설기술인 현황 및 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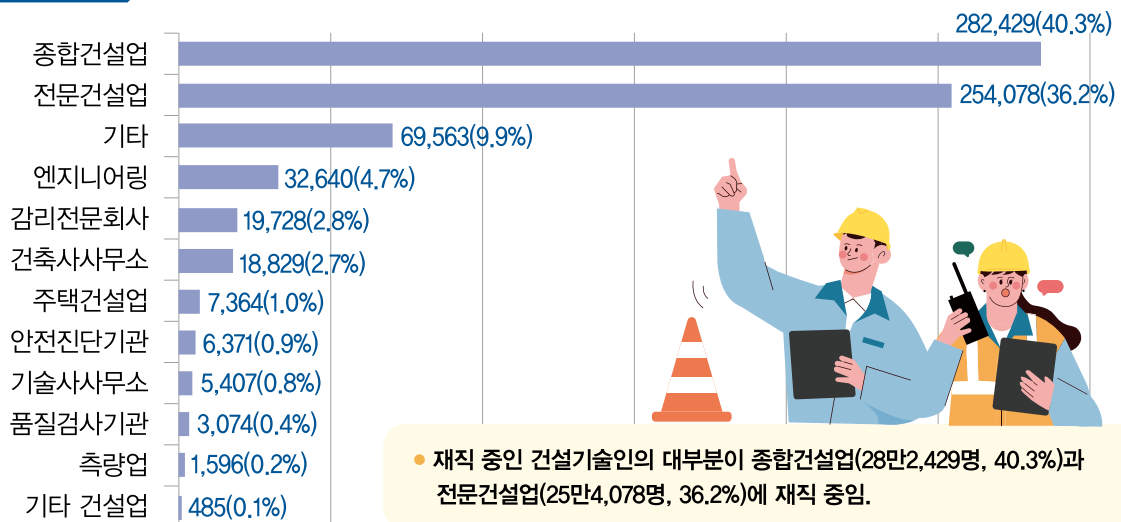


## 재직 건설기술인 총량 변화



- 2023년 기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 중 재직자는 70만1,564명으로 2022년 대비 2만6,865명(+3.8%) 증가하였으며, 5년 사이 13만6,088명(+19.4%) 증가함. 다만 증감률 측면에서는 2021년을 기점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

## 재직 분야



- 재직 중인 건설기술인의 대부분이 종합건설업(28만2,429명, 40.3%)과 전문건설업(25만4,078명, 36.2%)에 재직 중임.

※ '기타': 발주청, 건설관련단체, 비건설업체 등

※ '기타 건설업': 위 업종 분류에 속하지 않은 건설업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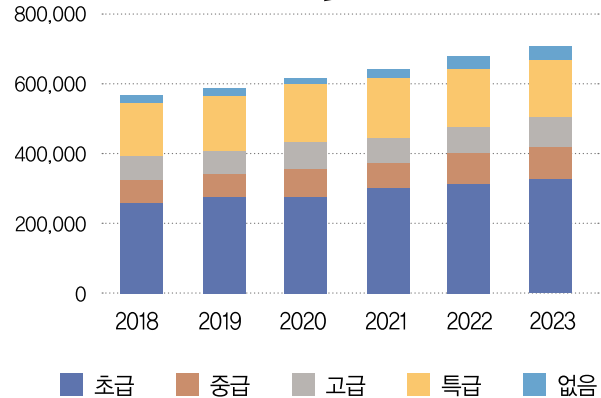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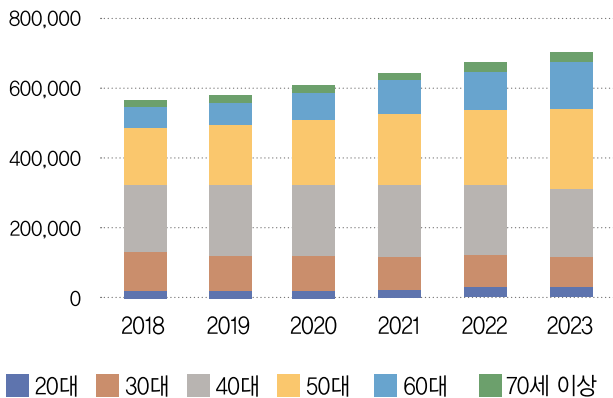
## 분석 목적

전체 건설기술인 중 현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재직 건설기술인  
수급현황을 파악해 건설기술인의 취업 동향 및 시사점을 도출

\* '재직 건설기술인'이란 조사시점 기준 재직상태인 자를 뜻하며,  
건설기술인이 신고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업태를 분류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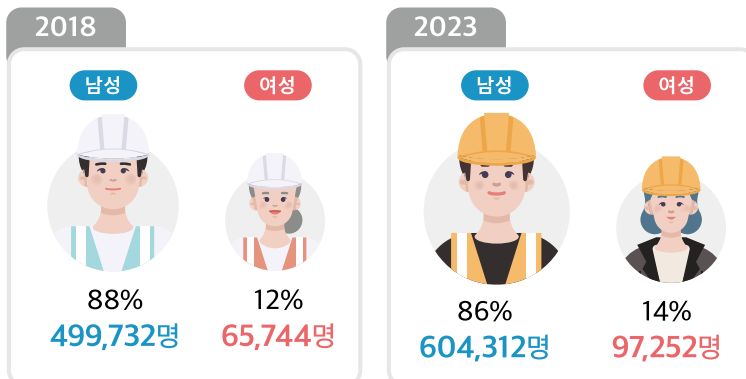
## 연령별·등급별 재직 건설기술인 비중 변화



- 50대 이상 재직 건설기술인 비율 증가  
(2018년 42.1% → 2023년 55.2%, 5년 사이 13.1%p 증가)
- 반면, 20·30대 재직 건설기술인 비율 감소  
(2018년 22.6% → 2023년 17.2%, 5.4%p 감소)

- 초급 기술인 비중 변화  
(2018년 46.3% → 2023년 46.4%, 0.1%p 증가)
- 중·고급 기술인 비중 변화  
(2018년 23.9% → 2023년 24.4%, 0.5%p 증가)
- 특급 기술인 비중 변화  
(2018년 25.2% → 2023년 23.5%, 1.8%p 감소)

## 건설기술인 성비 변화



- 재직 중인 건설기술인 중 여성 기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(2018년 12% → 2023년 14%)

## 시사점



- 재직 건설기술인의 총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30청년층 진입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
- 대부분의 재직 건설기술인은 시공(종합 건설, 전문건설)분야에 분포하고 있으며, 여성 건설기술인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실정임
- 청년 및 여성들의 건설산업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/정책 개발 필요(이미지 개선, 워라밸 확보 등)

<자료제공>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

